

千 새정치 통합제의 거절... 朴 통합신당 잔걸음

(정배)

(주선)

천정배, 야권연대 강조... 安 신당과 차별화 나서

박주선, 김한길과 회동... “야권 경쟁력 위해 뭉쳐야”

가칭 ‘국민회의’ 창당을 추진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거듭 내년 총선에서의 야권 연대를 강조, 안철수 신당과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통합 신당 창당에 나서고 있는 박주선의원도 김한길 전 공동대표와 회동에 나서서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천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회 정책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이 전체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의 새정치연합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었다.

천 의원은 이어 “총선 상황을 미리 상상해 볼 때 일어(一興) 대 다야(多野) 구도를 통해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것까지 옳은 일처럼 믿고 나갈 수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천 의원은 “제가 (새정치연합과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새정치연합은 이미 수명을 다했으며 야권 주도 세력을 확실히 바꿔야겠다”고 강조, 내년 총선 직전의 당 대 당 통합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주선 의원 등 다른 신당 추진 세력과 의 통합 여부에 대해, 천 의원은 “안 의원이 독자적인 창당을 이미 결정하고 가고 있고 저도 안 의원 탈당 이전에 창당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는 관계된 의원과 세력들 사이에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 사퇴를 전제로 통합에 나서달라는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

표의 제의를 거부했다.

천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저는 주도세력의 교체가 전제돼야 한다는 말을 일관되게 해오고 있다”며 “그 방법은 신당 창당이며 새정치연합 내부의 갑론을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히, 신당 창당을 통한 야권재편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국회의원회 창당추진위원회는 내년 1월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국민회의 광주시당을 창당한다. 이에 앞서 같은 달 5일에는 광주시장 창당 발기인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이날 김한길 전 공동대표와 회동, 통합 신당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서 김 전 공동대표도 “안철수 의원이 독자신당이 아니라 통합신당을 추진해야 하며 그야 새정치연합과 경쟁할 수 있다”며 “신당 추진 세력들이 통합된 신당을 추진해야 경쟁력과 확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통합 신당 창당은 야권 재편의 전제조건”이라며 “신당 추진 세력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통합에 나서야 호남의 지지를 넘어 국민적 지지를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호남 민심은 신당 세력에 야권의 창조적 재편을 통한 정권 창출의 비전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호남 정치의 복원도 바라고 있다”며 “호남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신당 추진 과정에서 꼭 필요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웃고는 있지만...

가칭 국민회의 창당을 추진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왼쪽)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예방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하세월’ 연말국회

쟁점법안 진전 없이 절전만

제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미해결 과제 해결을 위해 문을 연 12월 임시국회가 23일까지 정상 가동을 못한 채 계속 헛돌고 있다.

여야는 지난 21일부터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를 즉시 가동키로 재합의했으나 이 역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환경노동위, 산업통상자원위가 각각 노동법과 원상법 논의를 위해 23일 오전에 열렸으나 여야 모두 원론 차원의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며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21일에는 법사위가 406건의 계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50여건만 처리한 채 최저임금법에 대한 여야 이견에 대해 결국 파행했다. 또 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위·안전행정부·환경노동위 등 쟁점 법안 소관 상임위가

한 차례씩 열렸으나 여당 단독으로 소집하거나 현장 시찰을 위한 성격으로 ‘제면치레’에 그쳤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회 공전을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가 그야말로 반쪽국회, 입법마비국회로 전락한 통탄스러운 시간이었다”면서 “여야간의 어떤 합의도 지켜지지 않고, 국회의장 중재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후안무치한 모습에서 부끄러움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합의는 쌍방이 하는 것이고, 파행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여당은 야당 탓을 하는데, 오히려 여당이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고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김황식 전 총리 호남 출마하나

與 총선 공천, 오세훈·안대희 등 거물급 협지 차출론 부상

새누리당의 내년 4·13 총선 공천에서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안대희 전 대법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협지 차출’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협지 차출론은 지난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론화하면서 사실상 당의 총선 전략으로 확정된 상태다.

김대표는 또 23일에도 여의도 모처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접촉해 ‘협지’ 출마를 요구했다. 이에 오 전 시장은 “당 방침에 따르면”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 협지 차출의 후보로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거론되고 있다. 비박(비박근혜)계 중진인 이재오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정치를 처음 하거나, 권력의 자리에 있으

면서 정치적 명성을 얻었거나, 지역구를 새로 선택하려는 분들은 과감하게 호남에 출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직접적으로 대상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당장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남 장성 출신인 김 전 총리의 호남 출마를 우회적으로 지목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하지만, 김 전 총리를 사실상 ‘사지’로 분류되는 호남에 투입하는 것은 가혹한 만큼, 수도권 바람몰이 차원에서 서울이나 경기 열세지역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당내에 나돌고 있다. 당내에선 이들 유명인사뿐 아니라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연예인을 영입, 수도권 협지에 내세우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총선 예비후보 등록 광주 10명·전남 30명

선거구 미획정·신당 창당 등 변수에 저조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 내달 1일부터

내년 4·13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9일이 지났지만 등록률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으로 정치판이 ‘일여다야’(一興多野) 구도로 바뀐데다 선거구 미획정 등의 변수로 총선 판세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안갯속이 되면서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날 오후 4시 현재 광주·전남 예비후보자 등록건수는 광주 10명(1.3대1)·전남 30명(2.7대1) 등 모두 40명이다.

광주는 북구 을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와 서구 갑·을은 단 한 명도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은 불출마를 선언한 김성곤 의원의 지역구인 여수 갑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분구 논란을 빚는 장흥·강진·영암

과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는 예비후보 등록이 제로였다.

직업별로는 전현직 국회의원·광역 및 기초단체장 등 정당인이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수 6명 ▲법조인 6명 ▲정치인 5명 ▲시민단체 활동가 2명 ▲의사 1명 ▲무직 1명 ▲기타 8명 등이다. 기타 직업으로 일반 회사 대표 및 회사원·공인중개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이 예비후보 등록이 예년에 비해 저조한 이유는 ‘깜깜이 선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전남지역 일부 선거구의 경우 분구(分區)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선거구획

정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으면서 썬범이 복잡해진 탓이다.

일각에선 출마예정자들이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기 보단 등록 마감일 직전까지 관망세를 유지하며 조용히 선거를 준비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대세적이다.

한편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공직선거법상(제60조의2·예비후보자 등록)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다.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이며, 지역 국회의원 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농민 생존권 위협 밥쌀용 쌀 수입 철회해야”

이개호 새정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23일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22일 밥쌀용 쌀 3만톤을 포함한 4만 4639톤의 쌀을 수입하겠다고 입찰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올해 쌀 생산량은 433만톤으로 지난 예결위 질의 당시 예상 생산량(426만톤)을 훨씬 웃도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



다”며 “이러는 사이 박근혜 대통령이 21 만원을 만들겠다던 쌀값은 지난 9월1일 15만9200원에서 23일 현재 14만4800원으로 끝을 모르게 대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는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이자 미래전략산업인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조치로,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